

■광주시 투자유치단, 중국 지우룽(九龍)자동차 방문 동행취재

“광주에서 전기차 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유럽·미국시장 진출 목표”

“전기차 지원정책 확실하다면
2500억 당장 투자하고 싶다”

지난 21일 중국 난징(南京) 공항에서 승용차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의 강두구 자동차 산업단지 내 지우룽(九龍) 자동차 공장. 지난 2007년 설립된 중국 신흥 자동차 완성차 회사다.

이날 광주시 공무원들과 광주시의회 의원, 자동차밸리위원회, 광주지역 자동차 관련업체, 자동차부품연구원 관계자 30명이 이 곳을 방문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상하이와 산시성 창즈, 허난성 위양에서 의료기기 수출과 관광교류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22일 오후에 방문단과 합류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시와 최근 MOU를 체결한 지우룽 자동차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보고, 기술력과 자동차 품질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투자유치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

1200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우룽차는 4개 생산라인에서 디젤·가솔린 승합차량 4종과 전기자동차 승합차 5종을 생산중이었다.

광주 방문단은 금형공장에서부터 조립공장, 도장 공장 등을 꼼꼼히 살펴

며 지우룽차의 품질과 기술력을 살펴봤다. 지우룽차는 한국 완성차 회사와는 달리 공장 내에서 금형부터 엔진과 시트 등을 직접 자체 생산, 조립해 완성차를 만들었다.

이날 공장 방문에 동행한 전문가들은 조이룽차의 기술력과 품질 등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반면, 지우룽차는 한국, 그것도 광주에 대한 투자 의지가 적극적이었다.

왕룽과 지우룽차 사장은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실하다면 내일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투자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지우룽차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지우룽차 린취안홍 국제부 사장 겸 총경리는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엔진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등에 대해 광주시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앞서가고 있고,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우수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아 광주를 투자 최적지로 판단했다. 특히 광주시의 투자유치 의지가 강한 것이 매력이었다”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 중국 양저우= 최권일기자 cki@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자동차 관련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23일 오후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지우룽(九龍)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왕룽파 지우룽차 사장의 안내로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 금남로는 자유다



지난 23일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가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성황을 이뤘다. 프린지페스티벌은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 관련기사 1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철강... 전남 주력산업 구조조정 ‘칼바람’

현대삼호중·대한조선 수주량 부족... 기자재업체들 경영악화

철강산업도 중국발 수요 둔화·공급과잉 심화로 저성장 지속

정부가 기간산업인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부문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이들 주력산업의 생산액이 전방 제조업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조선·철강산업은 우려되는 수준이며, 석유화학산업은 상대적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잔량이 1년간 작업 물량에 불과하고, 대불산단지를 중심으로 조선기자재기업들은 낮은 하청단가로 경영상태 악화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석유시추선 1척을 6700억원(5억 6800만 달러)에 수주했으나 ‘인도 취소’ 상

태에 있는데다가 저가 수주까지 겹쳐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영업적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1억3000만 달러에 2척을 수주해 수주잔량은 81척(80억 달러)이다.

철강 부문 역시 중국발 철강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심화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3년 뒤 중국 및 아시아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다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수출입은행 등의 전망이다. 철강협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34개 계열사를 정리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계열사 35개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지역 석유화학부문의 다소 여유가 있다. LG화학이 올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4577억원, 롯데케미칼 4700억원, 한화토탈 3000억원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업체가 1분기에만 1조2000억원대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자유가의 영향으로 에틸렌의 원료인 니프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들 업체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나서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조선 부문의 경우 사업 다각화 및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철강 부문은 고망간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선점 등에 나서도록 업체들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野 3당 “누리예산 전액 국가 책임”

정부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 도입 반발 ... 20대 국회 최대 쟁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기로 하자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지난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4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상위법이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시

행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든지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시행령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용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없는데 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어 문제”라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법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도시를 혁신하다-대만 ▶18면
 “공보다 빠르다” KIA 노수광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l (도시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8.8km/l),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